

쟁점(I): 한미 FTA와 한국경제

한미 FTA, 왜 안되는가

이 해 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다음 주면 6차 한미 FTA협상이 서울에서 시작된다. 알려진 바로 정 부측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한다. 여전히 여론 은 양분된 채, 반대 여론 역시 조금도 수그러들고 있지 않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수렴된 것은 없다. 협상은 하나의 원점을 향하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한미 FTA를 둘러싼 대내 갈등을 풀 고,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분명 대내협상은 실패하였다. 반대진 영을 물리적으로 억지한다는 것은 고위층의 판단일 것으로 보인다. 반 대진영을 철저히 배제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이상 남은 협상기간동안 대내적 갈등은 더욱 격해 질 것이 분명하다.

협상은 그 결과가 말해 준다 점에서 이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중간 평가가 요구될 시점이다. 협상과정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무역구제법 개선, 개성공단제품 한국산 인정, 쌀 제외를 '전략적 목표'라고 누차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측의 핵심적 요구가 걸려 있는 이 3대 목 표를 달성했는지가 협상성패를 판단할 기준이 됨은 아주 상식적인 결

론이다.

지난 12월 5차 협상때 우리측은 무역구제관련 5개 요구를 내걸고 결연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결과는 참패다. 우리가 내건 5개 요구란 것도 경제효과로 보면 거의 의미없는 즉 빈껍데기일 뿐인데 미국은 이 조차 거부했고, 그 우리측의 결연한 태도는 이후 온데간데 없다. 개성공단문제는 실제 협상장에서 아예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나마 쌀제외라는 목표가 남았지만 이미 2004년 한미쌀협상은 완료되었고 그 결과 2014년까지 관세화유예를 합의했기 때문에, 쌀문제는 처음부터 의제화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다. 한마디로 3대 전략적 목표에서 한국은 이미 실패했다는 말이다.

정부는 또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 자격증 상호인정 문제와 전문직 비자 쿼터를 한미 FTA의 매우 큰 장점이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전문직 비자쿼터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체결 과정에서 이미 소진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자국내 일자리를 일순위로 우려하는 민주당 지배하 미의회가 이를 확대할 가능성도 매우 낮고, 자격증 상호인정 문제는 미국내 민간부문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나오고 있다. 설사 미협상단이 이를 수용하더라도 주정부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미국에는 50개의 주법과 1개의 연방법이 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현재 하원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미국과 페루, 콜롬비아와의 FTA의 경우 50개주 가운데 단 9개 주만이 가입했을 뿐이다. 미국은 주정부의 FTA협정 의무에 대한 '비합치조치'에 대해 '포괄적 유보'를 주장하고 있다. 쉽게 말해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에 있어 주정부 조치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말이다. 미국은 주정부 '포괄적 유보'를 결

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한미 FTA가 타결되더라도 그것은 반쪽의 FTA일 뿐이다. 예컨대 정부조달분야에서 주정부가 차지하는 몫이 절반이고, 건설부문에서는 2/3에 달한다. 그런 점에 있어 한미 FTA는 전형적인 불평등조약이다. 하지만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한국의 어떤 지자체가 미국 주정부처럼 ‘포괄적 유보’를 요구했다는 것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투자와 관련해 볼 때 설사 투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포트폴리오투자인지, 직접투자(FDI)인지, 나아가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장설립형(Greenfield)인지 아니면 M&A인지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전혀 판이하다. 미국의 대미 투자중 거의 절반이 투기적 포트폴리오이며,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절반이상이 M&A라고 할 때 그 영향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IMF이후 2003년까지 외국인이 한국 증권시장에서 거둬들인 평가 차익이 1,000억 달러가 훨씬 넘는 현실에서 FTA의 결과 혹 미국의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경제에 약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북미FTA 10년 이후 캐나다에 투자된 미국의 직접투자의 약97%가 M&A자금이며, 미국기업이 매입한 캐나다 기업의 수가 캐나다가기업이 매입한 미국기업의 수보다 4배가 많은 3,000여개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 위험성을 실증해 주고 있다. 투자에 관한한 론스타 사례가 모든 것을 말해 준다. 산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우리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목말라할 때, 바로 이 론스타를 유치하기 위해 ‘집중노력’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투기자본에 4조5천억을 안겨주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이다. 한미 FTA 투자조항은 심지어 ‘사채’에 대해서까지 내국민대우를 비롯한 온갖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특기할 것은 우리측도 수용에 대해서만큼은 ‘투자자-정부 소송제’를 배제하고 이를 국내 절차로 대신하겠다는 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투자챕터에 관련된 거의 모든 쟁점에서 미국 안대로 진행되고 있다. 심각한 부동산문제나 조세에 대한 투자자-정부 소송제 배제도 주장했다만 다 미국안대로 가고 있다.

한미 FTA를 통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고 한다.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고,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산업 비중이 아직 낮으니 만큼 잠재력이 크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제조업에서 뒤져봐야 더 이상 나올게 없으니 이번에는 서비스산업이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서비스 개방하여, 경쟁력 강화하자는 것이 한미 FTA의 구호아닌 구호이다. 물론 개방한다고 경쟁력 강화된다는 입증된 과학적 근거는 없다. 단지 그렇게 주장될 뿐이다.

서비스산업중 전기, 가스, 수도등 공공서비스와 교육, 의료가 중요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네 하루 살이에 직결된, 어려운 말로 소비자후생에 직결된 부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부문은 개방하지 않겠다 한다. 그렇다. 하지만 문제는 개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시장화가 진전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한미 FTA와 ‘따로 또 같이’ 공공부문은 오래전부터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시장화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당장 이번에 처리할 필요는 없지만, 전기, 가스산업의 설비유지, 설계부문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교육, 의료와 관련된 핵심쟁점인 영리법인화는 이미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진행중이고, 이것이 한미 FTA의 투자조항과 결합될 때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한미 FTA에서는 병원지점설립이나 대학 분교설립 등도 ‘투자’로 간주된다. ‘주식회사 OO대학교’, ‘주식회사 OO병원’에서

우리는 이제 발길을 돌려야 한다. O병원에서 나서. OOO동에서 자라, '주식회사 OO대학교'를 나와, '주식회사 OO병원'에서 건강검진받고, OO병원 영안실에서 생을 정리하는 이것이 바로 '양질의 교육, 의료서비스'일까.

서비스산업 가운데 미국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방송통신, 온라인콘텐츠, 영화 등 이른바 미래 지식산업이다. 그런데 우리측은 이 분야에 대해 미래의 시장 수급을 고려해 상당수의 '미래유보'를 요구했고, 반면 미국은 이를 현행유보로 바꿀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3년 기준 대미 서비스무역 최대의 적자부문은 '로열티 등 사료' 항목이었다. 즉 지적재산권 부문이다. 2002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WTO 부속협정가운데 하나인 '무역관련 지재산권 협정(TRIPS)'을 완전 이행했을 경우 매년 -153억달러의 추가 지출이 예상되었다. 미국은 +190억달러의 수입이 예상되었다. 미국이 지적 재산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은 외국의 특허출원이 지난 10년 폭증함에 따라 실로 고독한 단연 돋보이는 지적재산권 채무국이 된 것이다.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TRIPS도 모자라, 'TRIPS 플러스'를 요구한다. 한미 FTA 지재산권조항은 말 그대로 손안대고 코푸는, 신자유주의 약탈경제의 산표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서비스, 투자, 지재산권부문은 사실 핵심중의 핵심이다. 여기서 우리가 협상을 통해 가져온 것은 유감스럽게도 '없다'.

처음 정부측 주장에 따르면 한미 FTA는 '두마리 토끼' 잡기이다. 즉 지금 한국 경제 성장이 지체되고, 고용이 안 되니, 한미 FTA라는 외부 충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성장도 가속화하고, 고용도 촉진하고 또 나아가 '사회양극화'도 해소하자는 것이 그 골자이다. 정부는 처음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일자리가 최대 약 55만개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미, EU, 중, 일과 FTA를 체결할 경우 일자리가 약 10만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EU, 중, 일과의 FTA에서 일자리가 65만개 줄어야 한다. 한미 FTA를 제외한 다른 FTA는 곧 실업대란을 의미한다는 말일까. 한마디로 황당하다.

한미 FTA의 결과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감소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것과 비교해 한국의 관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미 FTA는 미국상품에 더 많은 가격인하효과를 가져다준다.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아마 한미 FTA 체결 이후 어느 지점에서인가 한국의 대미흑자기조는 무너질지도 모른다. 미대외무역위(USITC)의 2000년 보고서의 분석결과이다. 어찌 보면 한국경제가 대미흑자로 돌아선 것은 IMF의 효과이다. 즉 수출이 급증해서라기 보다, 대미 수입이 급감함으로써 흑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FTA의 효과로 대미 수입이 급증해서 대미무역적자가 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조업은 그나마 믿는 구석이 있다. 특히 다른 것 다 망가져도 자동차와 IT가 버텨주면 만사형통이라는 식이다. 과연 그러한가. 자동차는 이미 미국현지 생산을 개시하였고, 알려진 것처럼 IT는 한국 수출경제의 주력중 주력이다. 먼저 한국차의 대미 수출관세가 고작 2.5%에 불과한 반면 미국차의 수입관세 인하효과는 8%이다. 미국은 또한 우리나라 세수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세제를 뜯어 고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소형차가 한국에 상륙할 때 그 결과는 누구도 모른다. 한마디로 자동차산업이 한미 FTA수혜 업종이라 하지만 실상은 그

렇지 않다는 말이다. IT를 보자. 우리 경제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그러나 IT는 그 업종의 특성상 고용 및 생산 유발 효과가 매우 낮다. 그래서 이른바 산업연관효과도 낮다. IT 수출이 늘어도 성장과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4대선결과제 즉 쇠고기, 스크린쿼터, 자동차 배기가스, 약값을 보자. 이 중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는 미국이 ‘완전해결’을 요구한 사안이었다. 또 쇠고기 수입재개는 광우병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낳았고, 잇따라 발견된 뿔조각은 수입쇠고기의 반송폐기를 낳아 여전히 쟁점이다. 명백히 수입 계약 조건을 위배한 미국의 쇠고기 업자를 미국보다 더 감싸고 나선 곳은 한국의 외통부와 재정부 관료들이었다. 과거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를 주장한 문광부를 향해 그랬듯이, 이들에 의해 농수산부 죽이기 작업이 한창이다. 쇠고기, 스크린쿼터라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협상카드를 사전에 내 준 것은, 마치 아마추어 복서가 헤비급 프로복서와의 시합을 앞두고 스스로 두발을 묶고 링위에 오른 격이다. 4대 선결조건이 우리 경제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는 일단 차치하고 보더라도 진정 심각한 것은 협상 마지막 국면에 쓸 카드를 스스로 버렸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거액의 혈세를 동원 한미 FTA에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덧씌워왔다. 반대하고 비판하는 진영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이름으로 과거 5공시대의 구태를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조차, 경찰청장의 막연한 판단으로 일상적으로 금지하는 행태를 보인다. 그러나 제대로 협상이라도 했다면 이 모든 것을 권력의 오래된, 물론 ‘못된’ 습성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다. ‘이익의 균형’이 목표라고 정부는 주장해 왔다. 해서 이제는 진정 듣고 싶다.

협상을 통해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 굳이 들자면 하나가 있다. ‘물품취급 수수료’!

사실 나는 ‘협상’은 끝났다고 본다. 남은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일 뿐이다. 대통령의 사인을 받기 위해 온갖 구실을 동원해 관료들은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사람의 ‘오기와 독선’에 내맡기기에 우리의 미래는 그리고 그 고통 또한 너무나 길다. 한미 FTA 차기정부 이양을 포함한 ‘명예로운 퇴각’을 준비하는 것, 그나마 지금 우리가 선택할 최선이 아닐까 한다.*